안드로이드스쿨 0111 과제 a.minkuk.seo

ActiveX ? > 인터넷 기능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이용형태가 등장하면 단순 웹브라우저와 HTML 문서 자체만으로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다 수용할수 없게되었다. 때문에 웹브라우저와 연동되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자의 pc에 추가로 설치해 웹브라우저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플러그인이 대두되었다. **이 플러그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activeX이다.**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성이 높고 무제한에 가까운 기능확장을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에 못지 않게 호환성, 보안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단점 또한 극명하게 나타난다.

국내 ActiveX 정착 이유?

> 200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가 활성화 되기 시작하면서 금융당국은 각종 보안규제 강화에 힘쓰기 시작한다. 넓게는 당국 차원에서 의 보안지침 제공, 인터넷 금융거래의 실제 내부에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인증서 이용을 강제하는 규제를 포함해서 말이다.

>**이때 당시 한국의 보편적인 컴퓨터 사용 환경은 윈도우xp, 인터넷 익스플로러 6 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안업체들이 윈도우 기반의 IE 웹브라우저를 기준으로 솔루션을 제공했고 그것이 현재 고착화 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ActiveX를 이용한 보안모듈 제공은 적어도 그 시대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되는, 오히려 환영받는 기술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에 와서 웹표준이 이슈화되고 윈도 이외의 타 O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또 윈도 안에서도 IE 외에 파이어폭스나 크롬과 같은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ActiveX 기반의 보안 모듈이 오히려 사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과거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다.** >

그렇다면 개발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조차 권하지 않는 activeX 왜 유독 한국에서만 존속되는 이유는? -->**기술적 부채**>

1.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 시장 금융기업들은 오랜기간 activeX 기반으로 지속적인 안정화 작업을 진행해왔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새로추가비용, 리스크를 감수하며 신기술 도입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 >2. activeX + 공인인증서 콜라보는 소위 국내에만 통용되는 국내산 작품이다. 이는 문제 발생시 금융당국의 통제가 용이하다는 관리용이의 관점에서 굳이 관리가 어려운 외국, 세계 표준격인 SSL, OTP로 바꿀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점

>**안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웹표준 준수에 대한 사용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ActiveX를 만든 MS마저 ActiveX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에서 모바일 뱅킹으로 점점 트랜드가 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ActiveX를 이용한 보안에만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나갔다. 멀티 플랫폼(멀티 OS, 멀티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안 모듈 개발을 각 보안 업체들이 시작했고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중이기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출처: http://poem23.com/2458 [학주니닷컴]

기술적 부채

>기술적 부채(또는 기술 부채)는 지금 당장 해두지 않아도 되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수적인) 안해도 티가 잘 나지 않는 작업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거나 미뤘다가 파생된 결과가 부채(debt)의 개념으로 돌아오는것을 지칭한다. 이 부채라는 것이,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실제 빚처럼 점점 더 커진다는 것도 비슷하다.

느낀점

>남미에서 3년 동안 지내다 왔는데 외국 현지에서 한국은행 인터넷뱅킹 송금 관련하여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가 작동하지않아 곤욕을 크게 치렀던 경험이 생각났다. 가끔 해외사이트에서 직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 비해훨씬 간소한 절차에 왜 한국에선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 라는 의문을 가져보기도 했다.

>표준, 접근성 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상식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의 수를 따져서 최대한 많은 경우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식으로 기술이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들과 이해 타산들로 인해 기술적 부채 문제가 대두 되는 것 같다.

>작년 초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이후 국내 웹 보완 환경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다. 기존 기업들에게 물론 액티브x 및 보안체계 이외의 추가비용 부담이 있었겠지만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한국 웹만 역행하고 있었던 구조를 개선한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

> 자취생활 하면서 생필품들을 대부분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하는 편인데 부가적인 인증, 보안절차 없이 한 번 등록한 결제 및 확인 정보로 언제 어 디서나 정말 쉽고 빠르게 쇼핑을 할 수 있다. 편리함을 만끽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인위적인 규제 및 저항은 결국 변화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이 또한 다 양한 보안기술들이 활발한 자유경쟁을 통해 해결되어 질 문제가 아닐까 생 각한다.